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글의 A의 삶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일 점령하의 폴란드에서 그릇 공장 사장이었던 A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이후 A는 몸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천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기 옷의 넥타이 편 하나면 몇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 ① 추상적인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심미적 유희를 추구한다.
- ② 세속적 삶에서의 구원을 위해 초월자의 섭리에 의탁한다.
- ③ 구체적 도구를 창조하여 선천적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 ④ 의식적 사고와 자발적 동기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⑤ 타고난 재능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여 자신의 성공을 모색한다.

2.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 그림의 ㉠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도덕적인 덕은 중간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습관화를 통해 달성된다.
(나)	

— <보기> —

ㄱ. 겁낼 것은 겁내되 겁내지 않을 것은 겁내지 않는 덕입니다.
 ㄴ. 비겁에도 치우치지 않고 만용에도 치우치지 않는 덕입니다.
 ㄷ. 영혼의 수련으로 참된 지식을 깨우치면 생겨나는 덕입니다.
 ㄹ. 타고난 성품으로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덕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은 어느 고대 중국 사상가의 글이다.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은?

“훌륭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훌륭한 왕은 자신의 공적이 온 세상에 미쳐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란 베풀어지고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만물을 각기 만족시키는 것이다.”

- ① 허심(虛心)을 통해 물아 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②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지식의 확실성을 추구한다.
- ③ 옳고 그름의 분별을 위해서 자신의 주관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 ④ 훌륭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성을 중시한다.
- ⑤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익을 서로 나눌 것을 강조한다.

4.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가)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 유대에 필요한 덕목을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이 각자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답안

사회의 본질에 대해 ㉠(가)는 원자적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라고 보고, ㉡(나)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유기체적 결합체라고 본다.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는 각자의 자율적 선택을, ㉣(나)는 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는(나)에 비해 시민의 연대 의식과 사회에 대한 헌신을 더 중시한다. ...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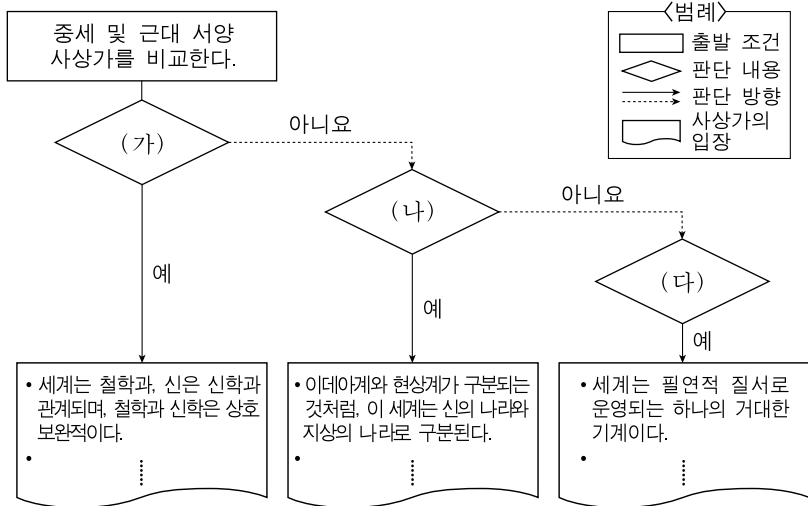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色)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受)는 물위의 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음을 깨달아라.

- ① 실체로서의 나를 확립하기 위해 팔정도를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 ② 궁극적 목표인 도제(道諦)에 이르기 위해 탐욕을 버려야 한다.
- ③ 만물은 무상(無常)하므로 무명(無明)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존재가 공(空)함을 자각하여 아집(我執)을 버려야 한다.
- ⑤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 불변함을 깨달아야 한다.

6. 그림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 신은 유일한 실체이면서 동시에 자연인가?
 ㄴ. (나):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인가?
 ㄷ. (나): 신의 은총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가?
 ㄹ. (다):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최고선에 이르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의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나 분배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나)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라고 가정하라, 그러면 그 당사자는 ㉠ ○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를 가정하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

	㉠	㉡
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원칙에 합의한다.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지위의 기회가 개방된다.
②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모른 채 원칙에 합의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도 정당화된다.
③	자신이 처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④	자기가 아닌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간다.
⑤	자기의 능력을 모른 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8.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본래 백성은 이기적이다. 군주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 벌을 주면 백성은 게으르지 않게 된다. …(중략)… 군주가 백성을 좋아하지도 않고 백성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군주 자신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안 된다. 그러므로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주는 백성의 근원이다. 군주가 맑으면 백성도 맑고, 군주가 흐리면 백성도 흐리게 된다.

- 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禮)로 통치해야 한다.
 ② 신하와 백성을 조종하기 위해 법과 술(術)로 통치해야 한다.
 ③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인이 무위(無爲)로 통치해야 한다.
 ④ 백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 겸애(兼愛)로 통치해야 한다.
 ⑤ 선천적인 도덕성을 확충하여 인(仁)의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상인은 근면함으로 부자는 허영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 공공의 행복을 가져왔다. 이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때 개인의 노력은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온다.
 을: 의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경제 공황도 치료가 가능하다. 경제 공황의 원인은 수요의 부족이며 제3의 경제 주체가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 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한 합리적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가?
 ②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회 복지 안전망의 확대를 추구하는가?
 ③ 경제적 형평성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극대화 되는가?
 ④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 기업의 공기업을 지향하는가?
 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1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 발현하는 것이 바로 치지(致知)이다. …(중략)… 이에 대해 갑 사상가는 “배우는 자는 마땅히 천하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한 앞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갑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치지가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임을 중시하고 있다
 ② 격물(格物)이 마음을 바르게[正]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마음과 이치[理]가 본래부터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④ 경(敬)의 자세로 궁리(窮理)할 필요가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⑤ 이치를 깨달은 후에 선(善)의 실천이 가능함을 무시하고 있다

[11~12]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屬)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고, 사양[恭敬]지심은 구(懼)에 속하고, 시비지심은 마땅히 희노(喜怒)해야 할 여부(興否)를 아는 정(情)에 속한다.

을: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은 마음속에서 발(發)하는데 이를 끌어내 키운 후에야 인정(仁政)과 예법을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은 인정과 예법의 시작이다. 사단의 이면(裏面)에 또 인의예지가 있다고 하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선(善)한 정은 모두 기(氣)가 발해 나타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전한 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사덕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사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단을 이(理)가 발한 성으로, 칠정을 기가 발한 정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천리(天理)인 인의예지를 마음에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이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상황>

A는 휴대 전화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옷도 잔뜩 구매했지만, 금새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악이 되기 쉬운 칠정을 사단으로 변화시켜 사욕을 버리렴.
- ㄴ. 탁한 기질을 바로잡고 본연의 성을 회복해 사욕을 극복하렴.
- ㄷ.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스스로 사욕을 이겨내렴.
- ㄹ. 마음속 이(理)가 발한 선한 정을 바탕으로 사욕을 제거하렴.

-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① | ㄱ | ㄷ | ② | ㄴ | ㄱ |
| ③ | ㄴ | ㄷ | ④ | ㄹ | ㄱ |
| ⑤ | ㄹ | ㄷ | | | |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보석이 유용하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해롭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보석이 주는 유용함과 해로움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으므로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쁨과 슬픔은 단지 너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을: 우리는 옷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구하려 하지 말라. 우리의 옷이 검소하다고 해서 어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보기>

- ㄱ. 갑은 세계의 본성과 인간 정신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 ㄴ. 을은 사회적 덕을 실천하는 공적인 생활을 중시한다.
- ㄷ. 갑은 정념의 제거를, 을은 허황된 욕구의 제거를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운명의 개척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의지란 견지 못하는 사람을 짊어지고 뛰어가는 힘센 맹인과 같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힘껏 달려 나갈 뿐이다. 이렇듯 의지는 인간 행동의 실질적인 추진력이다.

- 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의지의 참된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 ② 살려는 의지가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③ 무조건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선한 의지를 따라야 한다.
- ④ 이성과 의지의 조화가 윤리적 삶의 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옳은 행동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15.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세계의 본질은 정신이며, 역사는 절대 정신이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A)</td><td>(B)</td><td></td><td></td><td></td></tr> <tr><td></td><td>(C)</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의미하는 노자의 이상 사회. (C):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와 학파를 총칭하는 말. [세로 열쇠] (B): 개념</p>												(A)	(B)					(C)														
			(A)	(B)																													
	(C)																																

- ① 구성원의 참된 행복이 가능한 보편적 공동체이다.
- ② 개인의 완전한 자유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③ 개인들 간의 자율적 의사 결정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 ④ 가족의 원리와 시민 사회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 인문이다.
- 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참된 존재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최선의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善)이다. 그러므로 도덕도 성장하고 진보한다.</p> <p>을: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p> <p>병: 도덕의 기초는 타인과 함께 느끼는 공감이다. 그러므로 공감을 통해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선하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ㄱ. A: 선형적 지식에 의한 행위 기준이 삶의 개선에 필요하다.
 ㄴ. B: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을 구분해 가치를 판단한다.
 ㄷ. C: 도덕 판단의 근거와 도덕 행동의 동기는 오직 감정이다.
 ㄹ. D: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연적 필연성은 이성이 없는 존재의 특성이지만 자유는 이성적 존재의 특성이다. 왜 이성적 존재가 자유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성적 존재가 실천 이성으로 타인의 영향과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 자신의 격률을 만들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자유를 통해 도덕적 정서에 기초한 정언 명령을 준수한다.
 ② 의무 의식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③ 인간은 이성적 명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한다.
 ④ 실천 이성은 도덕적 행동의 자유로운 실천으로 형성된다.
 ⑤ 도덕 명령은 사회적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18. (가), (나) 사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로의 개혁은 민중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의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회는 더 이상 부르주아의 지배하에서 존립할 수 없다. 부르주아의 지배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폭력 혁명이 필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의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 ① (가)는 국가의 역할이 국방과 치안 유지에 한정됨을 강조한다.
 ② (나)는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다.
 ③ (가)는 사유 재산의 인정을, (나)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주장한다.
 ④ (가), (나)는 역사적 필연성에 따른 자본주의 붕괴를 주장한다.
 ⑤ (가), (나)는 궁극적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한다.

19.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성인은 남이 선하게 대해 주길 바라지 않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쓰며,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에 힘쓰고 덕(德)에 힘쓰지 않는다.

을: 성인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롭게 할 것을 바라는 천(天)을 통치의 법도로 삼고, 비용만 많이 들고 백성들의 이익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병: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선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대하며,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분별심을 갖지 않는다.

<보기>

ㄱ. 천하에 이로운 것[利]이 곧 의로운 것[義]이라고 여기는가?
 ㄴ. 타고난 친애(親愛)에 기초한 인(仁)의 실천이 필요한가?
 ㄷ. 충효(忠孝)와 같은 도덕 규범을 혼란의 원인으로 보는가?
 ㄹ. 예(禮)와 악(樂)의 번성을 통한 도덕 사회의 실현을 강조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연 정복을 위한 과학 기술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② 자연이 고립된 입자들의 단순 결합체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③ 인간이 자연 만물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④ 인간과 자연이 전일적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⑤ 자연이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수단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